

나도향의 「환희」 연구

정혜영*

차례

- | | |
|-------------------------|---------------------|
| 1. 서론 | 4. 처녀애의 존중, 사랑의 정신화 |
| 2. 근대문학에 나타난 처녀성 상실의 의미 | 5. 결론 |
| 3. 환희(幻戲)로서의 사랑 | |

1. 서론

1922년 발표된 盧子永의 『漂迫』¹⁾에는 연인 관계인 남녀 주인공이 기차 여행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여행을 하던 중 차창 밖의 경치에 취한 남자 주인공이 갑작스레 여주인공의 손을 잡는데, 남자 주인공의 이 행동은 곧 기차내 승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된다. 두 남녀 주인공이 이 십 삼 사세의 성숙한 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단발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1920년대 조선의 보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들 두 남녀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점은 여성을 가리켜 '나의 마돈나' 혹은 '나의 여왕'으로 호명, 여성 숭배의 태도를 표명한 『白潮』의 몇 몇 연애시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 부경대학교 시간강사

1) 盧子永, 『漂迫』, 『白潮』, 1922. 4.

남녀가 애정의 표현으로서 서로의 손을 잡고, 키스를 나누는 자유 분방한 모습이라든가,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나의 마돈나', 혹은 '나의 여왕'으로 호명하는 등의 여성 숭배적 태도가 결코 조선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질적 풍경이었다면, 이와 같은 행위와 의식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이는 곧『白潮』의 성향, 나아가서는 조선의 근대의 '기원'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白潮』의 동인이었던 나도향이, 신 청년들간의 애정관계를 주된 테마로 1922년 발표한 장편『幻戲』는 주의를 요한다.

『幻戲』는 1922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된 작품이다. 후대의 부정적 평가³⁾에도 불구하고, 『幻戲』는 연재시 젊은 남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⁴⁾ 여기에는 이 작품이 대중의 취미에 부합되는 '애절한 사랑의 전말사'를 다루었다는 점 이외에도 "기미 직후의 여성, 새로 개성에 눈을 뜬 과도기의 신여성"의 심리⁵⁾를 묘파해냄으로써 당대 신청년들의 정서에 부합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점은, 한국 근대문학이 산출한 "거의 유일한 낭만주의 소설"⁶⁾이라는『幻戲』에 대한 일련의 평가와 연결되어, 낭만주의를 표방하고 나선『白潮』誌의 의식, 나아가서는 근대 초기 조선의 신청년들의 의식의 지형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幻戲』의 의미를 고려케 한다.

-
- 2) 『白潮』 3호에 게재된, 盧春成의 연애詩 「의로운암」(盧春成, 『白潮』 第一號, 1922. 4)에서는 여성이 "나의 여왕"으로 호명되고 있다.
- 3) 조연현은 『幻戲』를 비롯 나도향의 초기 작품들을 "稚氣滿滿한 哀傷의 感傷의 작품으로서 당대의 人氣는 어찌했든 별로 取할 것이 없는 習作"(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成文閣, 1969. 421-423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희」를 비롯한 초기작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김우중, 채훈 등 후대의 논자들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 4) "이 小說이 한번 발표되자 京鄕의 讀者에게서 投書가 많이 날아들어 오는 중에 女人들의 讚辭가 많았으며 東亞紙의 紙數도 많이 불은 듯하다."(안석영, 『조선문단삼십년축면사』, 『조광』, 1938. 12, 43쪽.)
- 5) 김태준, 박희병,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240쪽
- 6) 최원식, 「長恨夢과 위안으로서의 文學」, 『韓國近代文學史論』, 林榮澤 崔元植 編, 한길사, 1982, 260쪽.

2. 근대문학에 나타난 처녀성 상실의 의미

1922년 발표된 나도향의 『환희』에서 여주인공 혜숙은 동경 유학생인 선용에게 사랑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미모에 혹한 부호 백우영에 의해 정조를 유린당한 후, 그와 결혼에 이르게 된다. 이 결혼은 백우영의 방탕함, 그리고 선용에 대한 혜숙의 죄의식, 혜숙의 병약함 등으로 인해 혜숙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 애정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폐해져 가는 혜숙의 모습과, 그런 혜숙을 보고도 연민은 커녕, 기방 출입에만 몰입하는 냉정한 백우영의 모습에는 육체적 결합에 기반한 남녀 관계를 유한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서 바라보는 나도향의 시선이 게재되어 있다. 이처럼 『환희』가 정신성이 부재한 남녀 관계에 의해 초래된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면, 처녀성 상실의 모티프는 이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처녀성 상실’의 모티프는 191·20년대 소설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1917년 이광수의 『無情』에서 기생 영채가 당대의 한량 김현수에게 정조를 유린당 하면서 ‘처녀’ 즉 처녀성의 의미가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한 이래, 1919년 발표된 김동인의 『弱한 者의 슬픔』에서는 상대 남성의 강압에 의한 여학생의 처녀성 상실이 주된 테마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여학생의 처녀성 상실 모티프는 이후 나도향의 『幻戲』를 비롯, 현진건의 『蹀躞』 그리고 이광수의 『再生』에서도 역시 반복되어서 나타난다. 이들 작품들이 ‘연애’ 및, 그 히로인으로서의 ‘신여성’의 의식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처녀성 상실의 모티프에는 근대적 세계의 제의식이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광수의 『無情』에서 정조를 ‘정절’로서 의식하는 영채와, 이를 주로 ‘처녀’라는 용어와 연관시켜 표현하는 이형식 간의 태도의 차이는 이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물론, 이형식 역시 정조를 상실한 영채를 떠올리면서 정절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는 하다. 이형식은 영채의 불행에 대해 충격과 연민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녀가 과연 자신에 대한 정절을 지켰는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 번 만나 보지도 않은 이형식에 대해 정절, 즉 전근대적 애정 윤리에 사로잡혀 죽음을 결심하는 영채와 달리, 이형식은 오히려 영채가 처녀인가, 아닌가하는 순결의 유무, 즉 육체적 변화의 쪽에 훨씬 관심을 기울이고 있

다. 영채와 선형의 사이에서 갈등하던 이형식이 갑작스레 선형에게로 마음을 선회시키면서, 선형을 가리켜 “티끌 만한 더러운 행실과 티끌 만한 더러운 생각도 없”는 “마치 눈과 같고, 백옥과 같고, 수정과 같”은 존재로서 칭송하게 되는 것에는 다름 아닌 선형이 “선녀 같은 처녀”⁷⁾라는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유교적 윤리 개념에 기반한 정절이라는 관념적 용어를 신체적 특성에 기저한 처녀(처녀성)라는 용어로 대체해 가는 이형식의 모습은, 그가 지향하는 근대적 세계의 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無情』에서 나타난 ‘순결한 처녀’에의 지향은 처녀성 상실의 문제를 다룬 모든 작품에서 동등하게 발견된다. “선녀같은 처녀”⁸⁾, “꽃다운 처녀”⁹⁾, “엔젤같은 … 處女”¹⁰⁾ 혹은 “純정한 處女”, “熱熱한 粉紅빛 歎美者”¹¹⁾라고 표현됨에 이르기까지, 초기 근대 문학에서 ‘처녀’는 경탄과 숭배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白潮』파 시인들이 여성을 ‘나의 마돈나’, ‘나의 여왕’으로 신격화시킬 때, 그리고 “사랑은 이세상모든것에떠나고 뛰여넘은것이고버서난것이라.”¹²⁾라며 사랑에 대한 극도의 찬미를 나타낼 때, 그 히로인은 언제나 육체적 경험을 지니지 않은 순결한 처녀로 한정되고 있었다. 그래서 여성의 처녀성 상실은 “연지같이 붉던 입술이 시푸르듯등하게 보이며 기쁘게 반짝이던 맑던 눈동자가 송장의 눈같이 으스스하게 하게 보이는 듯하”고 “따뜻하던 살 냄새가 그윽하던 그 육체는 시들시들하고도 차게”¹³⁾ 되는 상태 즉, 생명력의 상실과 같은 정도로까지 과장되어 소설에서 묘사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육체적 애정 관계에 대한 엄격한 배제, 여성의 신격화, 이와 같은 것들이 ‘처녀’에의 경탄에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면, 결코 조선적이라할 수 없는 이 낯선 의식과 용어가 표명하고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근대적 애정관에 대해 실파한 이광수의 「婚姻에 대한 管見」은 그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7) 李光洙, 『無情』, 『李光洙全集』 第一卷, 三中堂, 1962, 118쪽.
 8) 李光洙, 『無情』, 『李光洙全集』 第一卷, 앞의 책, 118쪽.
 9) 玄鎮建, 『蹂躪』, 『白潮』 第二號, 1922. 5, 206쪽.
 10) 春城, 「꽃피려는 處女」, 『白潮』, 第一號, 앞의 책, 113쪽.
 11) 金東仁, 「弱한者의 슬픔」, 『創造』, 二月號, 1919. 2, 71쪽
 12) 稻香, 「젊은이의 시절」, 『白潮』 第一號, 35쪽.
 13) 나도향, 「환희」, 『나도향전집』 下, 집문당, 1988, 218쪽.

물론 肉의要求도 있겠지요- 그것이 戀愛의 完成이겠지요. 原始的으로 보면 그것이 究竟의 目的이겠지요. 그러나 進化한 複雜한 文明과 정신생활을 가지게된 人類에 있어서난 이 肉의要求난 찰하리 第二義인듯한感이 있지요. 물론(?) 肉의要求가 不潔하다 함이아니지요. 靈肉의 合致가 戀愛의 하닛가, 또靈과 靈의 愛着에 肉과 肉의 愛着이 들어야 비로소 戀愛가 성립되는것이라 하닛가 肉의要求를 決코 賤히너집이아니지요. 다만 非文明的 戀愛는 오직 肉의 快樂을 渴求하는데 反하여 文明的 戀愛는 이것以外에(以上인지 以下인지는 모르나 아마 進化한 度를 標準으로 하면 以上이겠지요.)靈의要求가 있다함이외다. 高尚한 精神生活을 가진者는 肉의寂寞을 感하기전에 그보담 深刻하게 靈의寂寞을 感하는것이외다. 그럼으로 이러한 사람은(男子나 女子나를 勿論하고)戀愛에서 肉의滿足을求하려하기전에, 또 그보담 더 熱烈하게 靈의滿足을 求하려하는것이외다.¹⁴⁾

여기서 이광수는 진정한 '연애'란 '靈의要求'와 '肉의要求'의 결합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며, '肉의요구'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肉의要求'를 '靈의要求'에 부속되는 '第二義'적인 것, 혹은 '原始的', '非文明的' 감정으로 규정함에 의해, 그 가치의 인정을 중국에는 거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광수가 이상으로 삼은 '근대적 애정' 형태인 '연애'란, 性愛를 배제한 정신적 관계를 주요 골자로 하여 성립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성향이 여성의 지위 향상, 일부일처제의 확립 등 발달된 근대적 문명세계로의 '進化'를 지향했던 이광수와 같은 청교도적 성향을 띤 계몽주의자에게서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관능적 나부(裸婦)의 뒷 모습을 표지로, 낭만주의를 표방 1922년 창간된 『白潮』에서 박종화가 감상문 「永遠의 僧房夢」¹⁵⁾을 통해 「肉의 享樂」을 「卑劣」하고 「無意味의單調」로운 것으로, 그리고 「靈의 세계」를 「깨긋하고莊嚴」하며 「清新」 「聖潔」 「崇高」한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흥미롭다. 이처럼 정신과 육체의 이원화, 그리고 정신적인 것에 대한 절대적 가치 부여. 이것이 '연애'를 통해 표현되는 근대적 세계의 의식이었다고 한다면, 육체적 순결을 지닌 '처녀'야말로, 정신성을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존재였던 것이다. 즉, 근대 문학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처녀에 대한 경탄과 숭배 및, 처녀성 상실의 모티프에는 남녀 애정 관계의 정신화·영화(靈化)에 기초한 남녀 평등의 근대적

14) 李光洙, 「婚姻에 對한 管見」, 『學之光』, 1917. 4, 31쪽.

15) 朴鍾和, 「永遠의 僧房夢」, 『白潮』 第壹號, 앞의 책.

세계를 지향했던 ‘연애’의 제의식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애’의 제의식이 당대 조선의 신청년들에게서 어느정도 정확히 이해되고 있었던가의 문제는, 조선 사회의 의식의 정도를 가늠케하는 요소로서, 이 점에서 나도향의 『환희』는 주의를 요한다.

3. 환희(幻戲)로서의 사랑

1925년 발표된 나도향의 장편 『어머니』에서 여주인공 영숙은 비록 첩이라고는 하나 아이를 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재회한 소꿉친구 춘우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남편 몰래 춘우와의 밀회를 즐기다가 급기야는 가정을 버리고 춘우를 따라나서는 영숙의 행위는 사랑의 열정이라고 결정 내리기에 미흡한 무언가를 느끼게 한다. 첫 만남 이후 과감하게 춘우에게 만나자는 편지를 보내는 영숙의 행위는, 겨우 두 번째의 만남에서 영숙의 손을 잡고 사랑을 고백하는 춘우의 행위와 연결되어 이들의 애정이 내면으로부터 자연스레 발생된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성급히 조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강하게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춘우를 향해, “나의 몸의 주인은 있어도 나의 영의 주인은 없었는데 이제 그 영의 주인을 얻었다”는 영숙의 고백은 그 내용의 애절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공허하게 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스쳐 지나가듯 겨우 두 번을 만나고는 ‘영(靈)의 주인’ 운운하는 등, 『어머니』의 두 연인들이 일으키는 이와 같은 어이없는 착각 혹은 의식의 과장은 신 청년들간의 새로운 사랑의 풍속도를 그린 나도향의 장편 『환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환희』는 여학생 혜숙, 동경 유학생 김선용, 재력이 백우영간의 삼각의 애정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여기서 여학생 혜숙은 가난한 동경 유학생 김선용을 겨우, 두 번 만나고는, 연모의 감정을 고백하는가 하면, 별다른 감정적 연계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경의 김선용에게로 연서(戀書)까지 보낸다. 이는 김선용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혜숙을 겨우 스치듯 한 번 만나고는 혜숙에게 사랑을 저버리니, 아니니 운운한다. 사제지간 혹은 혁명적 동지로 만나, 정신적 애정을 형성시켜가려하던 이광수의 『無情』과 『再生』의 연인들을 고려한다면,

이들 『환희』의 두 연인들의 애정 형성 과정은 너무나 급작스러워서 당사자인 선용조차도 “그날 그 짧은 시간의 한 마디를 꾸미고 사라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과연 자기와 혜숙 사이를 굳고 굳게 사랑의 가다르로 엮어놓았을는지 의문”을 느낄 정도인 것이다. 선용에 대해 거듭되는 갈등과 혼란을 느끼는 혜숙의 태도는 이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혜숙은 청년 음악회에서의 선용과의 첫 대면 후, 그의 초라한 외모에 실망한 나머지 새련된 외모의 백우영과 김선용을 일순 착각하는가하면, 선용에게 보낸 자신의 연서(戀書)를 차라리 백우영에게 보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혜숙의 모습은, “거죽을 보아서 아무것도 만족한 것을 찾아내지 못”할 만큼 선용에 대해 실망을 느낌에도, “어떻든 만족한 것을 그에게서 찾아내어 그를 그리워하여 보기도 하고 사랑도 하여보았으면 하”고 느끼는 등, 노력에 의해 애정을 형성시키려는 그녀의 이상한 심적 상태와 연결, 혜숙이 어쩌면 사랑의 감정을 이해치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실제로, 혜숙은 김선용과의 교제에 대한 오빠 영철의 권유를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려 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까지 김선용에 대해 애정을 지니지 못하면서도, 김선용과의 애정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랑에 대해 일종의 강박증에 걸린 듯한 분위기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혜숙의 모습은, “어떠한 여자든지 나의 <이상적 아내> 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다.”며, 이상적 아내와의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기생과의 유희에 탐닉하는 백우영, 그리고 “신성한 연애”에 대한 동경 속에서 ‘연애’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선용의 모습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사랑의 형식 ‘연애’의 이입에 직면한 근대 초기 신 청년들이 겪는 의식의 혼란으로 연결되어 간다. 선용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혜숙이 일으키는 다음의 상상은 이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어린 혜숙은 다만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만 그리고 있을 뿐이었다. 선용씨가 일본서 공부를 하여 가지고 돌아 오거든 앞에는 수정 같은 냇물이 굽실굽실 여울지어 돌아가고 뒷동산에는 성(聖)된 종려나무 그늘 같은 무르녹은 녹음 가운데 어여쁘고 암전하게 양옥집을 짓고 살자!

그리고 선용씨는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자기는 전깃불이 고요히 비치고 나부끼는 창장(窓帳)을 가는 바람이 고달프게 할 때 그 옆 교의에 앉아 책을

보다가 선용씨가 머리가 고달프다고 붓대를 놓거든 나는 피아노의 맑고 가는 멜로디로 그의 머리를 가라앉혀 주리라. 그러다가 달이나 흰하게 밝거든 뒷동산 숲 내린 사이로 두 사람이 팔을 마주 겨누고 이리저리 소요하면서 나무 사이로 흐르는 푸른 달빛에서 한없고 달콤한 정화에 취하여 보리라 하였다.¹⁶⁾

선용에 대한 갈등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혜숙이 낭만적 결혼 생활의 동반자로서 선용을 선택하려함에는 동경 유학생이라는 선용의 신분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경 유학생과의 결혼이 곧 미래의 영화로 이어진다는 식의 세속적 욕망이 선용에 대한 혜숙의 애정의 한 부분을 지탱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매력적인 재력가 백우영을 두고, 가난한 고학생이며 별반 호감을 느낄 수도 없는 김선용과의 애정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혜숙의 행위는 결혼 생활에 대한 그녀의 낭만적 공상과 연결, 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가능케 한다.

결혼에 대한 혜숙의 공상은 선용과의 애정의 깊이, 선용의 경제적 정도 등 현실적 여건과는 무관하게 전개되는 반면 흥미롭게도 『無情』의 김선형이 일으키는 이상적 결혼에의 공상과는 유사한 형태를 띤다. 동경 유학생 출신의 남편, 피아노 선율, 이층 양옥집 등 서구적 가정의 개념을 지닌 '스위트 홈'을 이상적 결혼 생활로서 공상 속에서 떠올리는 혜숙처럼 『無情』의 김선형 역시 동경 유학생을 미국 유학생으로 교체할 뿐 동일한 요소들을 공상 속에서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형식에 대한 불만족과 회의적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애정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無情』의 김선형의 이율배반적 태도와 연결, 김선용에 대한 혜숙의 애정의 기원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선용과 혜숙의 애정 관계는 근대적 애정 형태인 '연애' 및, 그 결정체로서의 '스위트 홈'의 의미를 개념으로서 먼저 수입, 그 실현을 위해 학식을 지닌 동경 유학생을 필요로했던 혜숙의 태도에 크게 의지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용에 대한 혜숙의 애정, 정확히 말해서 애정의 상대로서 선용을 선택하려하는 혜숙의 행위에는 근대적 애정관계 '연애'를 형식으로서 먼저 수용, 이에 따라 '사랑'의 감정을 형성시켜가던 근대 초기 신 청년들의 불안정한 내면의 문제

16) 나도향, 『환희』, 집문당, 1988, 204쪽.

가 내재되어 있었다. 『퀴바디스』와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그 소설들을 전범(典範)으로 자신들의 애정을 생성·진행시켜 가는 등, 근대 초기 조선의 신 청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던 애정 형성의 기이한 전도과정이 계속, 나아가서는 『無情』의 김선형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田園의 봄뜰』이라는 노래를 만도령에 마쳐 노래”¹⁷⁾하고는 여학생 혹은 유학생 출신의 “스위트하트”와 “붉은키스”¹⁸⁾를 나누는 것을 ‘연애’로 인지, 여학생 혹은, 유학생 출신의 남성만을 애정의 상대로서 집요하게 쫓아 가던 『白潮』 동인들의 사랑에 대한 부박한(浮薄)한 의식이 주의를 요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선용에 대한 혜숙의 애정이, 조선의 연애= 俗戀愛라는 당대 논설의 비판적 논지¹⁹⁾에서도 나타나듯, ‘연애’를 일종의 세세이셔널한 사건으로 밖에는 인지할 수 없었던, 당대 신청년들, 나아가서는 근대 초기 조선의 의식의 한계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김선용 역시 여기서 별반 예외는 아니었던 듯하다. 김선용의 경우, 혜숙의 변심에 절망, 자살까지 시도하지만, 두 번의 간략한 만남과 한 두 번의 서신 왕래가 전부였던 그와 혜숙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극단적 행위는 다소간 납득이 힘들기도 하다. 특히, 혜숙에 대한 열정적 사랑의 감정을 토로하면서도, 자신을 연모하는 일본의 여학생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배우영과의 결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혜숙에게 불굴의 사랑을 약속하면서,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일본의 여학생에 대해 ‘사랑의 정’을 떠올리는 김선용의 모습은, 그가 토해내는 사랑에 대한 과다한 열정의 언변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점에서 김선용은, 정조의 유린으로 인해 이루어진 강압적 결혼이었음에도, 남편 배우영과의 ‘처녀 시대의 그 열렬한 사랑을 영구히 계속’하고 싶다면 사랑에 대해 기묘한 착각을 일으키는 혜숙과 묘한 공통성을 보이고 있기 조차하다.

이처럼, 사랑을 약속하고, 곧 다시 그 약속을 반복하는 김선용의 모습은, “사

17) 盧子永, 『漂泊』, 앞의 책, 9쪽.

18) 懷月, 「感想의 廢墟」, 『白潮』第壹號, 앞의 책, 230쪽.

19) 『서울』 잡지에 실린, 「俗戀愛는 反對」라는 논설에 의하면, 젊은 청년 남녀들이 “모혀안즈면戀愛니야기오. 꽃가흔少男少女는흔히 戀愛에醉하라한다”고 전제 한 후, 연애가 정신성에 위주한 연애의 본래적 의미에서 이탈, 속연애로 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林蜚正氏, 「俗戀愛는反對」, 『서울』 第3號, 1919. 4, 57쪽.)

랑 앞에는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만 벌거벗은 사랑이 있을 뿐”이라는 사랑에 대한 그의 열정적 언사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 한순간도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해준다. 혜숙과의 애정 관계를 정리, 일본의 여학생을 향해 가면서 『파우스트』를 가방에 챙겨 넣는 김선용의 모습이나 일견, 보들레르의 시귀, “青春을 앗기느냐?/ 그것도오는압날에”²⁰⁾를 그대로 추종했음직한 ‘청춘’의 짧은 피에 대한 김선용의 근거 없는 강조, 및 열정이 사랑의 감정조차도 이식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대 초기 조선의 신 청년들의 모습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환언하자면, 사랑과 관련, 김선용이 겪는 혼란에는 기생과의 유희, 이외에는 별다른 남녀 교제의 기회를 찾기 어려웠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남녀 관계의 정신화와 같은 낯설은 용어와 갑작스레 직면케되었던 근대 초기 조선의 신청년들의 충격과 혼란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사랑과 관련, 김선용을 비롯, 혜숙 등 당대 신청년들에게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사랑 형성의 기이한 전도 과정은, ‘치녀’에 대한 그들의 경탄 혹은 숭배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4. 치녀에의 존중, 사랑의 정신화

『환희』에서 혜숙은 백우영의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나, 겨우 두 번 만났을 뿐인 백우영을 집으로 방문, 그와 단들이 머무는 등, 백우영에 대한 자신의 호의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명한다. 여기에는 대모테 안경과, 은단장, 양복으로 장식한 백우영의 외형만으로 그가 바로 동경 유학생 김선용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혜숙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듯, 대모테 안경과 은단장, 양복의 구비 = 학식과 재주를 지닌 신 청년의 상징으로 파악하던 일견 부박(浮薄)하다고도 할 수 있는 혜숙의 의식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듯하다. 서구 혹은 일본의 연애 소설들을 읽고는 그에 촉발되어, 멋진 유학생과의 연애를 갈망하는 것과 같은, 연애에의 환영이 사랑에 대한 혜숙의 의식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연애에 醉하라”²¹⁾ 노력하던 당대 소녀들처럼, 연애에 깊이 감염되어 있는

20) 春城, 「鐵襄城에서」, 『白潮』第壹號, 앞의 책, 105쪽.

혜숙의 모습은, 백우영의 외형에 대한 호감만으로 시작된, 즉 상호간의 정신적 교류가 부재한 채 전개되는 백우영과의 애정 관계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예측케 해준다. 백우영과 김선용이 혜숙과의 애정 관계를 진행해가는 방식의 차이는 이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혜숙의 아름다운 외모에 매료, 그녀에 대한 관심 혹은 애정의 마음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는 백우영 역시 김선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혜숙의 사랑을 얻음에 감복하여 환희의 눈물을 흘린다는가, 혜숙과 연서를 주고 받는 김선용의 모습이 일견, 낭만적이며 정신성에 대한 과다한 집착을 표명하던 당대 신청년들의 사랑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백우영은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혜숙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백우영은 혜숙과 강압적인 육체적 결합을 맺는가하면 그 책임을 추궁당하자, 쉽게 혜숙과의 결혼을 감행하고는 결혼 후에도 기생과의 유흥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물론, '연애'가 제시한 바 '이상적 아내'와의 결혼 생활 운운 하기는 하지만, 혜숙과의 결혼을 결정하면서, 다른 여성과의 사랑이 불가능하게 됨을 애석해하는 백우영의 모습에서는 김선용, 나아가서는 '연애'에 취한 당대 신청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불붙는 키-스에 그만 넘어져"²¹⁾버릴 정도의 열정적 사랑의 감정, 혹은 상대 여성에 대한 깊은 숭배의 태도는 찾아보기 힘이 든다. 오히려 농담과 유희로 일관하는 기생과의 유흥처럼, 상대 여성과의 거리를 엄격하게 설정하는 감정적 냉정함이, 사랑과 관련해서 백우영에게서는 발견되고 있다.

하룻밤의 향락을 위해 기생 설화에 '사랑'이란 말을 쉽게 내뱉고, 여학생 혜숙에게 흠모의 뜻을 표하면서도 그녀를 육체적 쾌락의 대상 이상으로는 간주치 않는, 이와 같은 백우영의 모습이야말로, 기생과의 교제가 남녀 교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당대 조선의 사랑의 양식- 일견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을 대변함에 있어, 김선용보다는 오히려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할 때, 사랑의 상실이라는, 김선용이 겪는 비극적 경험은 김선용이나, 그의 친우 영철이 토로하듯 '돈', 즉 경제력의 문제보다는 포즈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근대적 사랑 '연애'에 대한 김선용의 박약한 인식에서 기인

21) 林蠶正氏 談, 「俗戀愛는 反對」, 앞의 책, 57쪽.

22) 春城, 「꽃피려는 處女」, 앞의 책, 121쪽.

된 바 훨씬 컸던 듯하다. 남녀간의 거리 설정 및 엄격한 위계질서에 기반한 ‘夫婦有別’의 유교적 세계와 남녀 평등 및 全一的 사랑을 지향한 서구적 ‘연애’의 사이에서 균형감을 상실해버린, 당대 신청년들의 불안정한 내면의 문제가 김선용이 겪는 사랑의 상실의 배후에는 있었던 것이다.

사랑과 관련, 백우영과 김선용간에 발견되는 이와 같은 의식의 격차는 백우영과 혜숙의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되면서, 혜숙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백우영에 의해 정조를 유린당한 후, 혜숙이 나타내는 반응은 이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백우영에 의해 예기치 않게 순결을 상실한 후 혜숙은, 정조를 상실한 자신의 상황을, ‘처녀’라는 용어와 연관시켜 표현하는가 하면, 우연히 마주친 오빠 영철에게, 대뜸 자신은 이제 ‘처녀’가 아니라고 절망에 차서 고백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순결을 유린당한 경우, ‘정조를 상실했다.’거나 ‘몸을 더럽혔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함이 일반적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혜숙의 표현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서, 일견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진실로 절망적으로 감지하고 있는가하는 의문까지 들게 할 정도이다. 이는 동생의 불행 앞에서, 충격과 분노를 느끼기는커녕 ‘정신의 행복의 결과는 육의 만족이다. 그리고 육의 만족은 정신의 고통일까?’라며, 영똥하게도, 정신적 사랑과 肉愛의 차이를 들고 나오는 영철의 모습과 연결되면서, 남녀 관계의 정신화·靈化를 주창한 ‘연애’의 제 의식과의 연관성을 깊이 고려케 한다.

예를 들자면, 혜숙과 백우영간의 불행한 결혼생활, 즉, 혜숙에게는 냉담한 채 오로지 기생과의 유희에만 탐닉해 가는 백우영의 모습과, 그로 인해 폐병에 걸려 온전한 결혼생활이 불가능해지는 혜숙의 모습은 정신성이 부재한 남녀간의 애정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유한적이며,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애’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감지케 하기도 한다. 육체적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쇠잔해져버리는 혜숙의 육체라든가, 김선용에 대한 숙죄와 참회의 의식 속에서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정신적 애정을 뗄듯하게 갈구해가는 혜숙의 태도 등 정신적 가치를 모든 상황에 우선시키는 「환희」의 분위기가 주의를 요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혜숙은, 백우영과의 결혼을 계기로 갑작스레 김선용에 대한 애정을 마음 속에 형성시킬 뿐아니라, 김선용에 대한 '가슴 쓰린 애정' 속에서 그와의 사랑의 영원성을 갈망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사랑의 상실 후 죽음까지 결심했던 김선용에 대한 숙죄의 의식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기는 하나, 김선용에 대한 혜숙의 애정이 백우영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은 또다른 해석을 고려케 하기도 한다. 백우영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혜숙의 내면적 갈등은 그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백우영과 결혼하던 그날까지 모든 열락과 행복을 한없이 누리고 노래할 줄 알았더니 그 후 얼마가 되지 않아 정월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생활의 어딘지 한 구석이 비어 있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다. 그는 그때부터 비로소 처녀 시대에 몽상하고 동경하던 모든 것이 한낱 불잡으려 하나 불잡을 수 없는 촛몽과 같이 사라짐을 깨닫고 바위에 부딪치는 물결같이 깨어져 사라짐을 깨달았다.(……) 그러나 정월은 사랑에는 이해(理解)만 있으면 그 만이라 하였다. 그래서 자기 남편과 자기 사이에 사랑의 줄을 단단히 잇게 하여 주는 것은 다만 그 이해가 있을 뿐이라 하고 백우영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여 영구한 사랑을 그에게 주려 하였으나 백우영은 그것을 마지 못하여 또는 정월을 이해해 줄 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²³⁾

백우영의 방종, 폐병으로 인해 쇠잔해 가는 육체 등, 파탄을 향해 치달아가는 결혼 생활 속에서 혜숙이 제시하는 사랑에 대한 비전은 상당히 독특하다. '융화' 혹은 '이해'가 형성되지 않는 백우영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번민에서도 나타나듯 혜숙은 사랑을 상호간의 이해, 즉 정신적 교류로서 파악하는데, 이는 1917년 발표된 이광수의 「무정」에서, 여학생 김선형이 지닌 사랑에 대한 의식, 즉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이형식의 질문에, 남녀의 관계란 섬김이 있을 뿐이지, 사랑이란 생각조차 하여본 적이 없다며 당황해하는 김선형의 모습을 들이켜 볼 때, 일견 남녀간의 새로운 애정 패턴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백우영과의 결혼이 강압적인 육체적 결합 및, 부에 대한 동경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의해 지속되는 결혼 생활을 지향, 상호간의 이해에 기반한 깊은 결속력을 지닌 평등한 부부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혜숙의

23) 나도향, 「환희」, 앞의 책, 265쪽.

이울배반적 태도가 주의를 요하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그러나 혜숙과 백우영의 부부 관계가, 혜숙의 표현을 빌자면 “반죽이 잘 되지 않은 밀가루 떡”처럼 쉽게 융화되지 못한 채 진행됨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영구한 사랑’²⁴⁾, 혹은 정신적 교류를 통한 상대와의 쉼—의 사랑을 지향하는 이와 같은 혜숙의 의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듯하다. 애정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상대 여성들과 엄격한 감정적 거리를 상정하는가하면, 애정관계를 일종의 유희이상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다처제에 깊이 젖어 있는 백우영과, 남녀 1:1의 애정 관계를 규범으로 설정, 상호간의 정신적 교류에 기반한 영구한 사랑의 이념에 휩싸여 있는 혜숙간의 거리는 결코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백우영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한 귀퉁이 가슴이 빈 것을 채우기 위하여 시를 외우고, 소설을 읽고’ 음악을 배우는 등, 정신적 작업에 몰두해 가는 혜숙의 모습은 백우영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혜숙의 결핍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선용에 대한 혜숙의 새삼스러운 애정의 감정 역시 이 지점으로부터 이해 가능하다.

그렇다고는 하나, 백우영과의 애정 관계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 김선용에 대한 회의와 환멸을 갑작스레 절박한 애정으로 변환시키는 혜숙의 태도라든가, 백우영과의 애정 복원을 모색하면서, 한편으로 김선용에게 영원한 사랑을 호소하는 혜숙의 모습은, 혜숙이 제시한 사랑, 즉 이해와 융화등, 상호간의 정신적 교류에 기저한 ‘영구한 사랑’의 실체를 의심케 하기도 한다. ‘사랑은 영원히 사랑이요, 사랑 앞에는 죽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면서 ‘영구한 사랑’을 찾아 김선용을 향해 달려가는 혜숙과, 그런 혜숙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는 곧, 미지의 애정 상대를 갈망하는 김선용의 모습에는 연인을 향한 사랑의 절박함 보다는, ‘영구한 사랑’에 대한 동경 및, 도취의 감정이 훨씬 더 강하게 배어 있었던 것이다.

24) 영구한 사랑에 대한 나도향의 지향은 「환희」에서만이 아니라, 중편 「어머니」에서도 반복되어 발견된다. 예를 들자면, 등장 인물 창하가 내어 뱃는 “참 정말 영구한 사랑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하면, 그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라는 사랑의 절대성에 대한 언급은 이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나도향, 「어머니」, 「나도향 전집」下, 앞의 책, 412쪽.)

그러므로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해 가는 백우영에 반해 폐병은 물론, 급작스런 자살을 불러일으킬 만큼 혜숙이 겪는, 극도의 정신적 불안감의 기저에는 '연애'로 요약되는 이상으로서의 사랑과 보수적 조선의 현실간의 간극, 그리고 이미지로서 밖에는 '연애'의 '영구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근대 초기 조선의 젊은이들이 지닌 의식의 한계가 자리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처녀'에 대한 히스테리컬한 반응 및 집착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상실을 이유로 백우영과 별다른 회의나 갈등 없이 결혼에 이르러는 혜숙의 모습은 이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제시될 수 있다. '영구한 사랑' 혹은 全一的 사랑에 대한 환영 속에서 죽음에 이르러는 혜숙과는 달리, 사랑의 유한성에 대한 절망 속에서 죽음에 이르러는 기생 설화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이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엮드린 설화의 마음은 천이면 천, 만이면 만 갈래로 흐트러졌다. 그가 영철에게 향하는 사랑이 그의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십 구 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살아온 설화로는 단정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에게는 짓밟힘을 당한 아프고 쓰린 경험의 기억이 그의 마음 한 귀퉁이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남아 있다. 그는 영철을 처음에는 사랑하였다. 그러하다가는 그것이 뚫이 지나간 후에는 사랑하리라 하였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지나간 뒤에는 사랑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그리고 영철은 나를 사랑한다 하였다. 그러다가는 사랑할 터이지 하였다. 또 그러다가는 사랑하지 않지는 못하리라 하였다.

지금 와서는 다만 저의 남아 있는 반생의 모든 것은 당신에게 맡기었소 하리라 하였다. 그리고 맡기었다 하였다. 그러나 기생 노릇을 한 설화로서는 심분의 구로 영철을 사랑할지는 몰라도 심분의 일은 결합으로 남아 있었다.²⁵⁾

여학생의 신분으로서 청년 음악회에서 김선용과 백우영을 만나, 애정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혜숙과 달리, 설화는 기생의 신분으로서 은행원 영철과 직업적 관계로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기생으로서의 설화가 지닌 관능적 매력은 그녀와 영철간의 애정 관계를, 肉愛의 쪽으로 강하게 끌어가게 되는데, 이는, 남녀 애정 관계의 정신화에 대한 영철의 집요한 집착과 연결되면서, 이들의 애정

25) 나도향, 「환희」, 앞의 책, 290-291쪽.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어 가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동생 혜숙에게 김선용과의 교제를 강력히 추천하는가하면, 1:1의 남녀 애정 관계를 규범으로 설정, '처녀'에 대한 강력한 동경을 내보이던 영철의 입장에서 볼 때, 하룻밤의 쾌락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백우영을 손님과 기생이라는 직업적 관계 속에서 능수 능란하게 처리해 가면서, 자신과의 애정 관계는 애정 관계대로 진행해 가는 설화의 모습은 쉽게 용인될 수 있는 문제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설화와의 애정 관계 속에서, '처녀'의 붉은 저고리를 떠올리고, 끊임 없이 정조의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 불안정한 영철의 모습은, 정신적 교류가 부재한 남녀 애정 관계란 것이 얼마나 유한적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점에서 작품의 시선을 '연애'에 대한 긍정 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간다. 백우영처럼 남녀 관계를 일종의 유희로 가볍게 이끌지 못하고, 사랑의 감정으로 진지하게 밀고 가는 영철의 모습에서는, 혜숙과 김선용에게서 나타난 것과 같은 정신적 교류, 전일적 합일로 요약되는 '연애'에의 동경이 상당 부분 발견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과 관련, 영철에게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낭만적 태도와는 달리, 사랑을 바라보는 설화의 시선은 상당히 냉정하며 현실적이다. 설화의 경우, 영철에게 자신을 영원히 잊지 말아달라며,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요구하는 등 '영구한 사랑'에의 열망을 나타내기는 하나 사랑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녀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십분의 일의 결합'으로 요약되는 사랑의 불완전함이다. 영철에 대한 과도한 사랑의 열정에 휩쓸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과 영철간의 사랑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직시하는 등,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간의 감정적 거리를 상정시켜가는 설화의 모습에서, 인간간은 물론, 남녀 애정간에도 엄격히 거리를 형성시키던 백우영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영구한 사랑' 혹은 정신적 애정에 기저한 전일적 합일을 주창하는 영철을 바라보며, '십분의 일의 결합'을 떠올리는 설화의 시선에는 삶의 풍화를 겪은 인생의 프로로서 느끼는 애잔함, 그리고 조선적 풍토와는 유리된 '연애'의 제 의식에 급격히 편승해가는 부박한 신청년들에 대한 조소어린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쉽게 사랑의 감정을 변환시키는 김선용,

혜숙, 영철등과 달리,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랑의 상실로 인해 죽음에 이르러는 설화의 모습이 '연애'의 이입에 직면한 당대 신청년들의 의식의 정도를 가늠케 해주는 것은 이때문이다.

5. 결론

회상기의 형식으로 전개되는 나도향의 「黠學」에는, “저 봄에 목동의 피리 소리” 들리는 “넓고 넓은 잔디 위에 즐졸졸졸 흐르는 시내”²⁶⁾와 같은 결코 조선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질적 풍경이 등장한다. 조선을 묘사하면서도 서구적 자연 풍경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기이한 현상은 단지 나도향 문학에 국한되어 나타난 것이었다기 보다는 나도향이 동인으로 활동했던 『白潮』誌 나아가서는 초기 근대 문학 전반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근대 초기 조선 사회의 의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자연 풍경조차도 주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초기 근대 문학이 지닌 의식의 한계는, 1910년대를 즈음하여 조선으로 이입, 전개된 근대적 애정 형식 '연애'를 주 테마로 한 나도향의 「환희」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1922년 발표된 나도향의 「환희」에서 여주인공 혜숙을 비롯, 김선용, 백우영, 김영철 등은, '이상적 아내', '신성한 연애' 운운하며, '연애'에 대한 동경을 표하지만, 애석하게 이들은 한번도 근대적 애정 형식으로서의 '연애'를 경험치 못한다. 예를 들자면 '영적(靈的) 사랑'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쉽게 육체적으로 결합하는가 하면, 사랑의 절대성을 주창하고, '영구한 사랑'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도 별반 자각없이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배반해가는 등, 내면의 불안정함이 이들에게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연애'에 대한 동경 속에서 사랑조차도 인위적으로 조작, 경험하는 기묘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사랑과 관련, 「환희」의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의식의 혼란, 의식의 기묘한 전도과정은 새로운 애정 형식, '연애'의 이입에 직면, 남녀관계의 정신화, 영화(靈化)를 주창한 '연애'의 제의식을 포즈의 수준에서 밖에

26) 나도향, 「黠學」, 『나도향전집』上, 집문당, 1988, 23쪽.

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근대 초기 조선의 신청년들, 나아가서는 근대 초기 조선의 의식의 한계로 확대되어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환희」가, 「연애」가 상징하는 바 근대적 세계에 대한 동경 속에서, 환영으로서 밖에는 이를 경험할 수 없었던 근대 초기 조선의 의식의 한계와 절묘하게 부합되는 작품이었다고 한다면, 근대적 세계와의 갑작스런 조우 앞에서 혼란에 휩싸인 나도향의 모습 역시 이로부터 충분히 추출 가능하다. 「기생과의 대동강 뱃놀이」로 요약되는 전근대적 세계에 몰입해있던 김동인과 달리, 「페이브먼트 거리를 걷거나, 파라솔과 오페라 백으로 장식한 근대적 여성들과의 한강 뱃놀이」가 행해지는 근대적 세계를 끝없이 동경하기는 하나, 무작정 일본을 외치는 「환희」의 김선용처럼, 열면 지향과 동경의 수준에서 그에 대한 이해를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근대 초기 조선의 신청년 나도향의 모습이 「환희」의 배후에 있었던 것이다.

한글 주제어: 「연애」, 「근대성」, 「처녀성」, 「사랑의 정신화」

참고문헌

1.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成文閣, 1969
2. 김태준, 박희병,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3. 林榮澤 崔元植 編, 『韓國近代文學史論』, 한길사, 1982
4. 나도향, 「환희」, 『나도향전집』上下, 집문당, 1988

그 외, 『白潮』, 『서울』, 『學之光』, 『朝光』

<Abstract>

A Study on 'Whanhee'

Jung, Hae-Yong

『Illusion』 was a novel which had been published serially in the daily journal "Dong-A Ilbo" from November, 1922 to March, 1923.

Despite the criticism of post-generation, the 『Illusion』 had gained tremendous popularity from young men and women at that time.

Besides that the story was about a painful love affair which appealed to the general public at that times, the great popularity reside in that it had formed a consensus with young men's emotional aspect since it had poined out the psychologic aspect of the new-generation-women who enlightened on ego.

Combined with a standing point of view of "Almost-only romatic novel" as a product of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magazine "Baek-ho" as representative of romanticism, the importance of the novel 『Illusion』 must be evaluated as an index of the stream of consciousness of the young men in early modern Chosun era.